

경제

광주·전남 47개사 中企 '졸업'

광주 광주인탑스 등 25곳·전남 보해매원 등 22곳 정책자금 융자 등 140가지 혜택 순수 중기에 집중

광주MBC·화천기공·행남자기·호반·보성건설 등 광주·전남지역 47개사가 중소기업에서 졸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앞으로 140가지에 달하는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18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관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47개사 등 전국 894개사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됐다. 광주는 광주인탑스·スマ트케어·아이비트로·월드투자개발·모아건설·프리사·엘피씨·케이씨·대한중공업·금호에이티·유디엠씨·전방오토·호남사니·삼리·세빛중합건설·심우중합건설·명선중합건설·서령개발·심우건설·우산건설·더블유엠건설 등 22곳이다.

<표>

이들 업체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정책자금 융자, 연구개발(R&D) 자금 보조, 공공조달시장 참여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다. 다만 기존에 참여했던 시책은 남아있는 기간동안에는 인정된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등 140가지에 달한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관계회사제도 도입으로 중견기업에 진입한 광주·전남 47개 업체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됐다"면서 "상당수는 사업 다각화와 신규사업 진출 등 경영전략적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이를 기업이 중소기업을 졸업함에 따라 140가지에 달하는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순수 중소기업체에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 기본법에는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업체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관계회사제

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거 졸업하게 됐다.

이는 국내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과 계열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개별 기업만 보면 중소기업일지도 대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분을 만큼 인원이나 자산총액 등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역량과 잠재성을 갖춘 기업들"이라며 "중소기업 유타리에서 벗어나 국내 경제성장을 이끄는 추진동력으로써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중소기업 제외 광주·전남업체

◇ 광주 기업	◇ 전남 기업
선우중합건설	자연과사람들
명상건설	보해매원
광주인탑스	행남자기
화천기공	무안환경비전
광주문화방송	모아건설
스미트저축은행	프리사
금남지하상가	엘피씨울산전력
새창조건설	엘피씨코리아홀딩스
리데밸스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전남첨교육	신촌파인애플
우심산업개발	태전중공업
아시아비트로	케이씨
월드투자개발	대한중공업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금호에이티
셀린	금계
유디엠씨	보해비엔에프
전방오토	우미건설
호남사니	케이디아에너지
삼리	금광주조선산업
세빛중합건설	호반
심우중합건설	비오토
명선중합건설	보성건설
서령개발	
심우건설	
우산건설	
더블유엠건설	

중기중앙회 '제4 이통' 설립

대폭 저렴한 통화 서비스 제공 기대

중소기업중앙회가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공식 결정했다. 제4이동통신사는 기존 사업자들에 비해 대폭 저렴해진 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중앙회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의결했다.

출자 규모는 1000억원 이내다. 중기중앙회는 컨소시엄 구성 등 실무작업을 마치는 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IT분야 중소벤처기업 등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사업 규모를 고려해 법 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과의 합의도 이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의 이통사보다 낮 가격의 요금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1년 전남보험 활성화 웹툰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NH보험 우수직원 워크숍', '농협고객 행복자산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원스톱 재무설계 교육을 강화, 보험사업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남농협 보험사업 400억 증가 전국 1위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올 들어 6월 말까지 보험사업 부문에서 400억 원이 증가해 상반기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각종 재난에 노출된 농업인을

위한 보호장치로, 농업인 안전공제와 농작물 재해보험 등 농업인 관련 실익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고객의 필요에 따라 생명·손해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한 결과다.

농협 전남본부는 이를 위해 '농협

고객 행복자산 만들기', '농협보험 웰링지 2011' 등 원스톱 재무설계가 가능하도록 직원능력 향상 교육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행복자산 만들기' 전국 평가에서 화순군지부와 동순천지점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전남지역 농·축협 57개 사무소가 전국 우수 사무소로 선정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그쳤고 맥주는 195만7000㎘로 오히려 2.3% 감소했다. 2010년 국민 1인당 술 소비량은 19세 이상 성인 기준 소주 66.6병 (360㎖ 기준), 맥주 100.8병 (500㎖ 기준), 막걸리 14.2병 (750㎖ 기준) 이었는데 특히 막걸리 소비가 전년(9.1병)보다 많이 증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청년층·실직자·퇴직자

1485명에 일자리 제공

광주경총 올 상반기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유희율)는 18일 올 상반기 청년층을 비롯해 실직자·퇴직자 등 총 1485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99명보다 35.1%(386명) 늘어난 성과다.

분야별로 청년층의 고용노동부 중

광주 건설사 공사수주 25% 급감

토목 63% 감소…건축은 20% 늘어

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172명,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자원센터에서 86명,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과 전문인력 취업을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서 134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상담과 알선,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광주일자리종합센터에서 983명, 지역 맞춤형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빛고을 인적자원개발(HRD) 센터에서 21명,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인턴십을 통해 15명 등이다.

광주경총은 하반기에 청년층 취업 지원과 함께 시니어인턴십,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고령자 취업 알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성과는 찾아가는 만남의 날 행사, 동행면접 강화, 맞춤형 인력알선 등을 통해 구인·구직자를 잘 연결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전체 회원사 115개사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을 수주한 업체는 8개사(7%)뿐이고,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이고,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5개사(5%),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28개사(24%), 10억원 미만은 32개사(28%)였다. 6개월동안 단 1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도 42개사(37%)에 달했다.

전체 회원사의 64%(74개사)가 수주 실적이 아예 없거나 10억원 미만으로 광주지역 대부분 건설업체가 심각한 일감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2.7% 감소하고,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최저가찰제가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건설업체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대형건설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 중소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체 회원사 115개사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을 수주한 업체는 8개사(7%)뿐이고,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5개사(5%),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28개사(24%), 10억원 미만은 32개사(28%)였다. 6개월동안 단 1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도 42개사(37%)에 달했다.

전체 회원사의 64%(74개사)가 수주 실적이 아예 없거나 10억원 미만으로 광주지역 대부분 건설업체가 심각한 일감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2.7% 감소하고,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최저가찰제가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건설업체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대형건설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 중소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막걸리 '국가대표酒'

지난해 출고량 58%·수출량 178% 급증

1인당 막걸리 14병·소주 67병·맥주 101병

막걸리가 2년연속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우리나라 대표 '술'로 자리매김했다.

18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0년 주류 출고동향'에 따르면 작년 전체 주류 출고량은 343만4000㎘로 전년(333만3000㎘)보다 3% 증가했다. 이중 막걸리는 1년전에 비해 58.1% 늘어난 41만2000㎘가 출고됐고, 전년도 47.8% 증가율에 이어 2년 연속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는 전체 주류 출고량의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막

걸리 비중이 10% 대 점유율을 회복한 것은 지난 1995년 10% 이하로 떨어진 이후 16년만이다.

막걸리 수출은 1만9407㎘로 2009년 6978㎘보다 178.1% 늘어났는데 국가별로는 일본이 전년대비 201.4% 증가해 전체 수출량의 81%를 차지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출액은 155만만달러로 일본 청주 수입액(136만만달러)을 능가했다.

막걸리의 선전과 달리 국민 대

중주인 소주는 출고량이 93만1000㎘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0.07%에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학동회수산시장

동구 학동 664-16 증심사역 부근
광어, 우럭, 도미, 농어, 모듬 전문
대표 이동화
☎062-226-2050

향기공예방

북구 오치동 우산중옆
리본공예, 천연비누, 벌리티치제
버풀리 전문
☎010-5596-3057

집안꾸미기리브콩

북구 두암동 리인동상@와현대차 정문 맞은편
침구류, 커튼, 소파리폼, 의자커버링
인테리어소품, 패브릭의 모든 것
주문 맞춤제작전문
☎062-264-1080

토마토(두암점)

북구 두암동 리인동상@와현대차 정문 맞은편
해물덮밥, 비빔도밀, 칠리치킨오무리아스 등
포장가능
☎062-26